

남가주교협 제53대 회장에 최영봉 목사 취임

“교협 정상화, 남가주 지역 교회 섬김에 최선을 다할 것”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가 지난 30일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해성 목사)에서 제53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드리고 환한 출발을 알렸다.

이날 이·취임 감사예배에는 남가주교협 중경 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남가주교협의 새로운 도약을 격려하며, 교협 회복과 정상화 및 동포 사회 화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53대 남가주교협 회장으로 취임한 최영봉 목사는 임기 중 남가주 교협의 정상화를 이루고 한인 남가주 교계 연합기구로서 교회와 교역자들의 연합과 화합, 지역 사회 섬김과 교회 부흥을 위해 전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교회 목회자들의 세대교체에 발맞춰, 젊고 유능한 목회자들이 교협 안에서 능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이다.

최영봉 목사는 취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중책을 맡았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남가주 교계와 지역 교회를 섬기는데 충성하겠다”며 “남가주 지역 교회가 연합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3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중경회장단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

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길 소원한다. 협력과 상생으로 남가주 교계의 부흥과 발전,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임사를 전한 직전회장 김용준 목사는 “안타까웠던 지난 시절은 말끔히 씻어버리고 53대 남가주교협은 희망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란다”며 “함께 아픔을 나누고 수고해 주신 52대 남가주교협 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취임 감사예배는 김창영 목사(남가주교협 총무)의 사회로 권영신 장로(남가주교협

부회장)가 기도했으며, 최경일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 31대 회장)가 “벤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삼상 6:10-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형 목사는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법계를 메고 묵묵히 벤세메스로 간 것처럼, 남가주교협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남가주교협이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설

교했다.

감사예배에는 남가주명성교회 성가대와 조준석 목사(남가주교협 음악부장)가 특별찬양을 했으며, 최영하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헌금기도를 했다. 축도는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33대 회장)가 했다.

이·취임식은 샘신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의 사회로 이성우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기도 후 김용준 목사(남가주교협 52대 회장)가 이임사를 전했다. 이어 최영봉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다. 서정이 목사가 중경 회장단을 대표해 최영봉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했다. 최영봉 목사는 전 회장 김용준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축사는 윤성원 목사(전 미주총신대학장), 흥영환 목사(남가주교협 33대 회장), 최학량 목사(남가주교협 34대 회장), 민종기 목사(남가주교협 41대 회장), 정완기 목사(남가주교협 50대 회장), 김향로 장로(남가주교협 중경 후원 이사장)가 전했다. 또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준석 목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어 김소연 목사 외 2명이 찬양 율동 축하 공연으로 박수를 받았고, 김수신 목사(남가주 원로목사회 회장)가 폐회 축복기도를 했다. 김인숙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교제를 위해 식사 기도했다.

김동욱 기자

美 UMC 연회, 264개 테네시 교회 탈퇴 승인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테네시 주 홀스틴 연회는 최근 264개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1천8백개 이상의 교회가 탈퇴한 후 나온 결정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홀스틴 연회의 특별총회가 녹스빌 시내에 소재한 센트럴 연합감리교회(Central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지난 23일 열렸다. 교인 945명과 남은 교회와 떠나는 교회의 대표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탈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모였다.

총회는 홀스틴 연회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기도 캠페인의 시작으로 마무리되었다. 홀스틴 연회는 이제 동부 테네시, 남서부 버지니아, 북부 조지아에 있는 578개 교회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브라 윌러스-파켓 감독은 이날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탈퇴한 교회와 탈퇴한 목회자들이 UMC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총회 투표가 목사들과 교회들이 교단에 미친 영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P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연

합감리교회(UMC)는 “동성애를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식 입장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분열적인 논쟁에 휘말려 왔다.

2023년 말 만료되는 교회법 ‘2553항’은 교회가 특정 재정 및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들의) 재산을 갖고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 감리교 매체에 따르면 이러한 최근의 탈퇴로 인해 2019년 이후 2천95개 미국 교회가 UMC에서 탈퇴했으며, 이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약 7%를 대표하는 수치다. 홀스틴 연회의 교인 수가 14만8천

580명에서 11만7천378명으로 감소할 것이며 교인의 21%가 교단을 떠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CP는 “토론에 대한 좌절로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그들 자신만의 감리교 교파를 형성하거나 비종파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윌러스-파켓 감독 하에서 의장을 맡은 킴 고다드 목사는 홀스틴 연회의 미래에 대해 남은 578개 교회의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신실함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지오앤디교회
 Go&Disciple Church

아름다운 소식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1)

2023 지오앤디 교회 부흥집회 초청목사: 임진혁 목사 (마가의 다락방 교회)
 5.19 (금 / 8PM) 5.20 (토 / 7PM) 5.21 (일 / 12:30PM)
 GO&D (지오앤디) CHURCH 3021 BLUME DRIVE ROSSMOOR CA 90720
 문의전화: (714)745-8044, (562)656-4175

“교회 본질과 영성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가야”

풀러신학대학원 코리아센터 2023 심포지엄 개최

풀러 코리아센터(KSC)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적 상황에서의 영성 형성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기독교 영성의 이론과 실천을 논의하고 교회와 선교사 및 기독교 단체 사역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강사로 나선 심포지엄은 한국 기독교의 영성 형성 과정과 방향을 신학적 관점을 비롯해 성경적, 심리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심포지엄은 주제강의를 비롯해 사례발표, 전체 토론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학문적 이론과 목회 현장의 경험을 교류하는 유익한 자리도 마련됐다.

풀러 코리아센터 김창환 박사는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설립 초기부터 영성 형성을 강조하고 성경 연구에 전념했다는 점으로, 성경공부 모임인 사경회에서 시작된 한국 개신교의 일련의 부흥운동은 20세기 초 국가적 위기에 대한 독특한 영적, 문화적 대응이었다”고 고찰했다.

그는 “그동안 영성 형성은 데이비드 베빙턴의 복음주의의 네 가지 특징인 성서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회심주의, 행동주의와 함께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영성에 대한 전통적 실천과 이해를 돌아보고 현대적 상황에 맞는 재검토와 수정에 대해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호평했다.

주강사로는 유해룡 박사(모세골공동체교회), 상양 탄 교수(풀러신학대학원 임상심리학과), 김지선 교수(미국 얼햄종교대학원 신학), 데니스 오크흠 교수(아주사 피서픽대학 신학과)가 나섰으며, 톰 슈완다 교수(휘튼칼리지), 조의완 교수(풀러신학대학원), 김영옥 교수(풀러신학대학),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이강학 교수(헛블트르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예녹 교수(풀러신학대학원), 다니엘 리 교수(풀러신학대학원)가 주제별 선택 강의를 맡았다.

심포지엄은 한국 기독교 설립 초기부터 시작된 성령 운동을 조명했다. 또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태동한 오순절 성령운동 등 민족의 수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성장한 한국 기독교 영성 형성 과정을 짚었다.

유해룡 박사는 “1907년을 전후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조선 땅에 한국교회라는 새 포도주와 같은 교회를 탄생케 했고, 한국교회는 민족의 수난과 함께하는 교회로 자라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어두운 그림자도 오늘의 교회 안에 남았다”며 “이제는 비



풀러신학대학원 코리아센터가 개최한 2023 심포지엄에서 유해룡 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적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질적 영성으로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박사는 “목회자의 직분을 설교와 심방, 사람들을 관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직자라는 존재론적 측면을 무게를 두고 개인의 영성 형성을 이뤄가야 한다”며 “영성 목회가 아니면 목회는 소진하게 된다. 목회자 개인의 영성 형성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의 직분은 기술자와 다름없다. 성직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일정하게 통제하면서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AI의 등장과 목회적 대체에 대해서는 “AI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기독교의 본질

이 AI로 채워질 수 없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AI가 방법론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지만, 시대와 상관없이 본질을 붙들고자 하는 기독교 영성은 대체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강학 교수는 “사람이 인식한 궁극적 가치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데, 기독교 영성에서 하나님이 궁극적 가치이고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하나님과 대면하는 골방에서 침묵과 고독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해 영성 형성과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故 박희민 목사 장례예배, 나성영락교회장으로 거행

지난달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故 박희민 목사의 장례예배가 오는 11일(목) 오전 11시, 나성 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본당에서 나성 영락교회 교회장으로 거행된다.

장례예배는 박은성 목사의 집례로 진행될 예정이며, 장지는 할리우드 힐스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6300 Forest Lawn Drive Los Angeles, CA 90068)이다.

미주 한인 교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아 온故 박희민 목사의 장례예배에는 남가주 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故 박희민 목사는 미주 최대 한인 교회 중 하나인 나성영락교회에서 제2대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한인 사회의 영적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03년 나성영락교회 은퇴 후에는 원로 목사로 남지 않고, 은퇴 목사를 자처하며 교회를 떠나 아름다운 은퇴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은퇴 후에는 새생명선교회를 설립해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파에 앞장섰었다.

유가족으로는 박영자 사모와 아들 피터 박, 머느리 헬렌 박, 딸 조이와 사위 거스, 그리고 5명의 손자 손녀, 알렉스, 네이트, 호프, 살리스, 비비가 있다.

김동욱 기자

헬프피플인니드 ‘Wings of Joy’ 자선공연으로 사랑 나눠



헬프피플인니드 소속 'Wings of Joy' 자선공연단과 원로목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헬프피플인니드(대표 박종희 목사) 소속 'Wings of Joy' 자선공연단의 137회 공연이 지난 20일(목)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주향교회(담임 김진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선 공연에는 특별히 50여명의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이하 원로목사회, 회장 김수진 목사) 회원들이 초청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안병권 목사는 “괴절의 어느 한 조각도 하찮은 조각이 없듯이 사람도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기적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목사는 “기적에 동참한 이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피야 하며 물 떠온 하인과 같이 헌신해야 한다. 이들은 포도주는 맛보지 못했지만 기적의 능력을 맛보았다. 또 연회장과 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웃의 고난을 잘 살피는 사람,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웃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

과 천국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Wings of Joy' 자선공연은 김은숙 권사가 진도복춤과 찬양무용을, 이성현 집사가 색소폰으로 '포크송 메들리'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최영국 형제가 첼로로 '칸타빌레'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연주했고, 윤은주 집사가 피아노를, 테너 최순식 장로가 '오 솔레미오'와 '은혜'를, 그리고 소프라노 박종희 목사가 '내 맘의 강물'과 '시편 23편' 등 클래식 연주 등을 선보였다.

마지막 순서인 소프라노 박종희 목사와 테너 최순식 장로의 '목련화' 이중창이 끝나자, 원로목사들은 큰 박수로 호응하며 정성이 듬뿍 담긴 섬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는 헬프피플인니드 선교회가 준비한 도시락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헬프피플인니드 선교회 소속 'Wings of Joy' 자선공연단은 클래식 연주단으로, 2009년 10월 이 선교회 설립과 함께 창단된 이래, 현재까지 137회에 달하는 연주를 했으며, 저소득층 노인아파트, 요양병원, 노인센터 등 노인과 환자들의 처소를 직접 방문하여 섬기고 있다.

방주교회 설립 41주년 감사예배

하나님께서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방주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바라시며 지난 41년을 지켜주셨습니다. 방주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23년 5월 7일(주일) 정오 12시
- 장소 : 방주교회 예배당 (3735 Hughes Ave L.A CA 90034)
- 문의 : (213)663-3301



김명규 담임목사



예배안내

주일예배 12:00 PM
주일학교 12:00 PM
수요예배 7:00PM(자바 기도실)
주소 : 3735 Hughes Ave L.A CA 90034
문의 : (213)663-3301

“성장 위주의 한국교회, 이제는 멤버케어에 눈 돌려야”

[인터뷰]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

얼마 전 남가주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던 50대 전도사가 부인과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미국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 사건의 원인으로 경찰은 경제적 문제를 지목했다.

캘리포니아 가디나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던 그는 몇 년 전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해 영어권 2세대의 교육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려 보험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사역을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목회자 일가족의 참변 소식은 교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줬는데, 남가주의 한 목회자는 그동안 들춰내지 못했던 교역자 케어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달 LA를 방문한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을 만나 교역자 케어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박성진 학장은 한국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는데 등한시했음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다면 이제는 멤버 케어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서 목회자 연금, 생명보험, 은퇴 전별금, 교회 개혁, 목회자 이종직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방향도 들을 수 있었다. 이하는 일문일답.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의 현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는 생존의 기로에 있다. 앞으로 2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더이상 70-80년대 우리가 경험한 성장과 부흥을 꿈 꿀 때가 아니다. 성장은 내적인 질적 향상이 있는 후에야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들을 분석하고 냉철하게 자성의 목소리를 수용하며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질타를 받는 이유가 세상에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선한 사업을 하고 기독교 인구가 늘어날지도 장담할 수 없다. 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게 된다. 구조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가 미래 사역을 위해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성장을 위해서 계속 달려왔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안이 있어야 한다. 성장보다 멤버에 케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수정하지 않고 나아가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교단과 목회자들도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멤버 케어를 위한 교단적 차원의 고민과 해법을 모색해오다가는 목회자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서 은혜와 믿음으로 문제를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다.”

-멤버 케어에 대한 실제적 보완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나?

“교회마다 선교사 파송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교사님들에게 최소한 생명보험과 은퇴 연금은 들어줘야 한다. 파송했다면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모아 이분들에게 은퇴연금을 들어주어야 한다. 선교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선교사님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담임 목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분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은퇴연금을 들어주면 30년 정도 사역한 후에는 상당한 금액의 은퇴 연금이 쌓이게 된다. 그럼 전별금이 따로 필요 없게 된다. 매월 약정액이 지출되면 교회에도 큰 부담이 없다. 시스템 보완이 이뤄지면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은퇴 이후의 삶을 염려하지 않고 현재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또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목회자와 선교사가 돌아가셨을 경우 사모님들과 아이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명보험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

-미국 교단은 생명보험과 은퇴연금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

“제가 속한 미남침례교단(SBC)은 자립한 교회를 대상으로 헌금을 모은다. 이때 교회 성도수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진다. 모은 헌금은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위원회(IMB) 소속 선교사님들을 지원한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은퇴연금과 생명보험을 교단에서 들어준다.

가이드스톤 (GuideStone Financial Resources)은 남침례교가 설립한 재정 보험 관련 투자회사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담당하고 선교사님들의 연금을 관리하면서 증액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재정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립했으며, 교단 본부에 재정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면서 권력이 남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교회 개혁 후 정착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가 무엇이라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

고 생각하나?

“교회를 개혁할 때 준비되지 않은 개혁을 하기 때문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개혁하려고 하는 지역을 파악해야 하고, 목회 대상으로 삼으려는 그룹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지역의 멘토를 찾아서 지역의 사역 환경을 제대로 분석하고 시작해야 한다. 지역 환경을 제대로 알아야 개혁에 실패하지 않는다. 컨텍스트를 파악하지 못하고 개혁하면 100전 100패다.

많은 경우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퇴직금을 받아 교회를 개혁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개혁의 경우 퇴직금이 모두 떨어지면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교회의 부목사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막대한 손실이자 목회자들이 개혁하는 것에 두려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개혁을 할 수 있나? 실제 개혁교회 목회자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다.”

-교회 개혁 후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각 교단들이 교회 수를 늘리는데만 집착하기보다는 개혁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훈련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인 바람은 교단차원에서 개혁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겠다. 지역 선정부터 ‘왜 개혁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회 철학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가 필요하다. 사역 대상 그룹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도 제공해주어야 한다.

개혁을 준비하는 목회자들도 무작정 교회를 시작하기보다는 본인의 목회철학을 SNS를 통해 알리고 자신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자신의 목회 비전과 함께 할 30 가정이 모이지 않으면 개혁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회중들도 담임 목사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면 개혁을 해도 교회 사역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이종직에 관해서도 의견이 나뉘는데, 어떻게 보는가?

“돈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에 목회자들은 이종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종직을 비판하기에 앞서 목회자 지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지원과 구조적 시스템의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적 궁핍에 내몰리는 목회자들에게 고집스럽게 청빈한 삶을 요구할 수는 없다. 돈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실제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종직으로 피곤을 호소한다. 이종직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은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개혁에서 경제라는 부분을 가장 앞세울 수 없지만 경제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큰 혼란이 일어난다.”

-한국 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단과 교계, 목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개신교는 개혁주의 신학이 핵심이다. 전통만 따지고 더 이상의 개혁이 없으면 개혁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중세시대의 카톨릭에 불과하다. 그럼 희망이 없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성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또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내부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와야 한다.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부터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모른척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개혁교회가 많아져야 하는데, 담임 목회자의 사역 비전에 따라 교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 성도들이 함께하는 올바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자립 단계를 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지 비로소 생존이 가능하다. 교회 안에서부터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변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동욱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기총·한교연·한장총·한기연 “한국교회 협력해야”

한장총 대표회장·증경회장 모여 대화 나뉘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장총)·증경회장들과 현직 대표회장이 모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한장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기연) 등 한국교회 협력을 위한 모임을 25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교연합회관 한기총 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장총·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한장총 증경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와 한교연 상임회장 이영한 장로, 한기연 대표회장·한장총 증경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장총 증경대표회장 황수원·김수읍 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장총 증경회장 및 현 대표회장이 모임을 갖고 한국교회 협력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 ©한기총 제공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악법 제정을 막고 분절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 돼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역사가 있는 교계 연합기관인 한

기총이 다시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수의 목소리가 다시 한기총으로 모여야 대한민국을 바로 이끄는 등불이 된다는 것이다.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는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진리를 지켜왔다”며 “한기총이 정상화된 만큼 연합기관이 다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원하며, 이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서영 목사와 송태섭 목사는 간담회를 통해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협력하기 위해 한국교회 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대사회 및 대정부적으로 한국교회를 저해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며 연합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짚어보며 한국교회의 분절회복과 하나 됨, 다음세대 부흥,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악법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나눴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다은 기자

교회언론회 “한미동맹, 한국의 안전과 평화 지켜줬다”

한미동맹 70주년 논평 발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었다”며 “더 발전적인 한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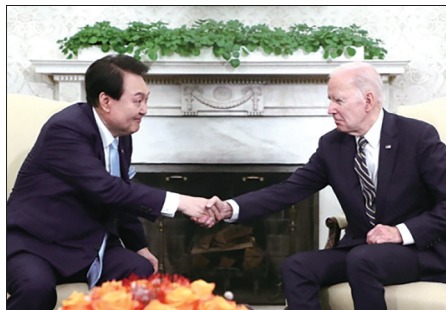
언론회는 “올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지 70주년이 된다”며 “이 조약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김일성 공산 집단이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고, 이에 유엔의 결의하에 미국을 비롯한 전투 참전 16개 국과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63개 국의 도움으로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물리친 후에 체결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사실 미국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 17만 2천여 명의 희생을 치렀다(전사자 54,246명,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3,284명)”며 “이는 국군 희생자 654,000명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에 미국 장성급 이상의 아들들 142명이 참전해 35명의 전사자를 내기도 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미8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한국과는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나라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는가? 이것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인 업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6.25전쟁이 발발하고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1952년 5월에 어느 정도 휴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포로송환 문제가 남았다. 그러는 가운데 1953년 4월 11일 상호포로교환협정이 성립되어 각서가 교환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해 6월 18일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2만 6천 명을 과감하게 석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깜짝 놀란 미국 측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것과 경제 원조를 약속함으로써 한미 간에 이루어지기 극히 어려운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

언론회는 “이 조약에는 한미 양국이 안보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할 것(제2조) 당사국 일방이 침략을 당할 경우 공동 대처한다는 것(제3조) 미군의 한국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제4조) 이 조약이 1년 전 통고가 없는 한 무기한 유효함이 지속된다는 것(제6조)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그것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지켜져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성실하게 지켜져 오는 조약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약으로 인해 미국은 한

국군의 군대 양성을 위해 원조를 하기로 하여, 1960년대까지 매년 3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했다. 이는 한국이 사용하는 국방비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순히 군사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등에도 적용되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원조와 도움을 받아왔다”며 “이후에는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되어,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한미동맹은 70년간 모범적인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6.25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적화(赤化)하려는 북한의 침략 야욕을 꺾고,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의 압도적인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란 선언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이 무모하게 핵사용을 할 시에는 북한의 멸망을 가져올 암시를 주므로, 우리나라를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성도 60% “목회자의 챗GPT 설교문 사용, 받아들이기 어렵”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 10명 중 6명이 목회자가 챗GPT를 통해 생성된 설교문을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구독자 중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목회자가 챗GPT를 통해 생성된 설교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총 360명이 설문문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60%였고, ‘받아들이기 수 있다’ 30%, ‘잘 모르겠다’ 10% 순이었다.

연구소는 앞서 목회자들에게 챗GPT 생성 설교문 사용에 대한 교인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물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혹은 어려울 것이다)’가 69%였다.

연구소는 “목회자 대비 성도들의 의견이 9%p 낮게 응답되었지만 과반수가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 실제 목회현장에서 챗GPT 생성 설교문을 사용하는 데에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北, 생사 오가는 민주화 정보전쟁... 외부 도움 절실”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회토론회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국회의원 태영호(강남구갑) 등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태영호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돼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독재정권의 부당함과 인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릴 수 없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7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북한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 보이지 않고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한류 문화가 퍼져가고 있다”며 “상층부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을 이끄는 기득권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에 잡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시민 봉기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매일 보고가 일어나고 있

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평등, 존엄성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남한 정보를 비롯한 외부 세계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손광주 이사(사단법인 북한인권, 前남북하나재단 이사장)가 사회를 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의 알 권리 보장책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상용 공동대표(테일리NK)가 각각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험성과 치유 방안’, ‘반동사상배격법과 우리의 과제’를 발제했다.

제성호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 탄압법, 자유와 개방의 공기 유입 포기법, 북한 체제 수호법, 북한 지도자 살피기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특히 통일부 장관 승인권은 ‘사전검열의 일상적 제도화’이자 ‘표현의 자유 등 핵심적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화 투쟁 과정을 통해 이룩해낸 국민의 인권적 성취를 되행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토론회 기념사진. ©김신의 기자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스스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상용 공동대표는 “북한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감시·감독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소식이 지속 들려오고 있다. 북한에서는 생사를 오가는 정보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에는 시정 및 유포시 최대 5년, 10년 처벌이었는데 현재는 시정, 유포, 문화적 요소에 대해 모두 최대 사형으로 법이 강화됐다. 공개처형과 연좌제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도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읽힌다. 주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는 건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하고

구속적인 통제를 가하며 주민을 상대로 우둔화 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생명권, 표현의 자유,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등 반인권적 요소가 농후하다. 지속적인 북한 인권 상황 감시와 북한 정보자유화를 위한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장세을 대표(겨레얼통일연대),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인지연 홍보위원장(한반)이 각각 ‘한국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반동사상배격법’, ‘북한 정권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북정책’, ‘북한주민을 노예로 지속 시키려는 한반도 남과 북의 두 법률(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역할’을 토론했다.

김신의 기자

침신대,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과 업무협약 연장



업무협약 사진(왼쪽 세 번째부터 피영민 총장, Jason K. Allen 총장) ©침신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피영민)는 25일에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총장 Jason K. Allen)과 양교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장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침신대에 안희열 기획실장, 최원진 학생실천지원처장이 참석했으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는 박성진 학장, 심민수 교수가 참석했다.

피영민 총장은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와 협약을 연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교가 새로운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Jason

K. Allen 총장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Allen 총장은 대학에배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사들(고후 5장 18~21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리고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교간 교환학생, 연구실적, 교환교수 교류 분야에 대한 연장 협의가 이루어졌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미국 남침례교단의 6대 신학대학교 중 한 곳으로, 1957년에 개교했으며, 미주리주 캔자스시에 위치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신천지 측 “말씀대성회에 목회자 500여 명 참석” 주장 충격



신천지 측 말씀대성회에 대한 기사들. ©네이버 검색 화면 캡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자신들의 ‘요한계시록 말씀대성회’에 목회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2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호텔 비스타홀에서 ‘계시 성취 실상 증거’ 말씀대성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목회자 약 500명과 말씀에 관심이 있는 성도, 일반 시민 등 총 1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단별 분포를 보면 69.1%가 장로교였고, 감리교(7.4%), 순복음(3.6%), 성결교(2.5%) 순이었으며 그 외 기타교단은 17.5% 였다고 구체적 비율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직책별로 보면 목사가 60.9%로 가장 많았

고, 장로가 26%, 그 외에도 전도사(5.6%), 신학생(4.7%), 선교사(1.8%), 강도사(1.1%) 등 이라고 했다.

신천지는 요즘에는 유튜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채널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계시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조 회수도 각 영상별로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한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얼마나 더 많은 목회자 혹은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신천지의 교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같은 신천지의 공격적 포교 활동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과 대응이 요망된다.

이대웅 기자

상담심리학과 디렉터 모집 공고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상담심리학 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디렉터로 재직하실 교수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 기독교 분야 석사 학위(M.Div., M.A. in Theology, M.A. in Christian Counseling etc.) 취득자
- 상담심리학 분야 박사(Ph.D. in Counseling Psychology, Doctor of Psychology) 학위 취득자나 그에 준한 자
- 미국 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인된 기독교상담심리학회나 목회상담협회의 1급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나 감독 자격 취득한 자 우대


제출서류:

- 국문 이력서
- 영문 이력서
-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작성):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하되 근무한 모든 기관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필히 기록 바람.
- 영문 강의계획서(Syllabus) 샘플 1부
-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영문 원본 각 1부: 졸업대학 사무실에서 직접 이메일 (stevehong@ptsa.edu)로 보내주거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로 우편 발송
- 목회자 추천서 2부
- 교수 추천서 2부
-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금)까지
- 지원서류 수신 담당자와 이메일 주소: 최고운영책임자 홍성학 교수 | stevehong@ptsa.edu
- 모든 서류는 e-mail(PDF)로만 받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3 - 2024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담임목사 김 경 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6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 본 주교회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선발 일정

- ▶ 신청서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 ~ 5월 31일
- ▶ 선발 결과 발표: 2023년 8월 1일 예정
- ▶ 장학금 수여식: 2023년 8월 20일 예정 (추후 발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3@joyfulccc.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인원

00 명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美 법무부, '미성년 성전환 수술 금지' 한 테네시주 고소

법원에 법 시행 일시 중지 요청...
빌 리 주지사 "최악의 정부 개입"

미국 법무부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4월 26일 미 법무부는 테네시 중부 연방 지방법원의 내슈빌 부서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을 대신해 개입 신청을 제기했다.

쟁점은 4월 서명돼 7월에 발효될 예정인 테네시주 상원법안 1호(SB 1)다.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 시행을 일시 중지하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 1은 성별 위화감 진단을 받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특정 형태의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일치되지 않는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그(트랜스) 정체성으로 생활하거나, 성별 불일치로 인한 불편과 괴로움을 겪을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을 포함한 절차 및 치료를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 페이스북

법무부의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가족 및 의사와 함께 건강 및 의학적으로 승인된 치료 선택사항을 고려할 권리는 특히 우울증, 불안 및 자살의 심각한 위험에 취약한 트랜스젠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반면 상원법안 1호를 후원한 잭 존슨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소송을 비판하며, 주정부의 새로운 법을 지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취약한 테네시인, 즉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보다, 급진적인 '우오크'(woke) 의제를 우선시한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테네시주 법무장관을) 지원하고, 테네시의 아동을 위한 투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이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빌 리 주지사는 온라인 매체 '데일리 와이어'에 보낸 성명에서 "테네시주

는 영구적이고 삶을 바꾸는 결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것은 최악의 연방정부 개입 사례이며, 우리는 주 법무장관과 협력해 법정에서 맞서고 아이들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상원법안 1호는 테네시주 하원 77 대 16, 상원 26 대 6으로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안은 의료 제공자가 성 정체성에 대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생식기 절단 수술을 시행하거나 이성 호르몬 및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며칠 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테네시지부, 람다 리걸(Lambda Legal) 등 동성애 옹호단체들과 개인들은 트랜스젠더 신원의 미성년자와 가족을 대신해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가 개입을 신청한 이 소송에서 원고는 "L. W."로 확인된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부모이자 내슈빌 주민인 사만다 윌리엄스와 브라이언 윌리엄스, 익명의 두 가족 및 멤피스 주민인 수잔 레이지 박사가 포함돼 있다.

테네시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선택적 이중 유방 절제술과 생식기 절단을 금지한 15개 주 중 하나다.

김유진 기자

목회가 재택근무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는?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가 쓴 '집에서 일하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실렸다.

샘 레이너는 '처치앤서즈(Church Answers)'의 회장이며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웨스트 브레이튼튼 침례교회의 담임목사다. 그는 칼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잘된 일이다. 목회자가 매일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진자가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컨대 모든 교회 직원이 집에서 일하고 사무실에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근무 시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일을 며칠 동안 갖는 것은 중요하다"며 다음의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1. 협업

하나님은 지체의 각 구성원이 고립되어 일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다. 교회 팀은 격납고가 아닌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슬랙(Slack, 클라우드 기반 채팅 플랫폼)과 같



©Nycholas Benaia/ Unsplash.com

은 의사소통 도구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책상에 들러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멘토링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신체적 존재감이 중요하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목회자들은 수년 동안 현장 사역을 했기

때문에 원격근무에 적응할 수 있는 법이다. 어리고 새로운 목회자가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멘토들과 직접 만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선배 목회자들의 좋은 습관과 강한 훈련을 관찰하고 반복하면서 사역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다.

3. 창의성

교향곡의 각 악기를 독립적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함께 연주하는 것을 듣지 않는 한 노래의 표현과 감정은 결여된다. 화면을 통과하면서 사라지는 창조적 에너지란 것이 있다.

4. 생산성

설교 작성과 같은 일부 작업은 가정 환경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많은 교회 업무는 첫인상, 예배 사역 기술, 교실에서 어린이 안전 절차와 같은 사람들 또는 교회 캠퍼스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현장에 있는 시간 없이는 준비 작업이 주일날에 급하게 이뤄진다.

5. 우정

농담과 웃음은 화면보다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 팀은 원격 근무로는 불가능

했을 무해한 사무실 장난을 즐겨 한다.

레이너 목사는 자신의 일주일 일정이 "6일간 일하며, 3일 반나절은 현장에 있지만, 교인, 지역사회 지도자 및 기타 목회자와의 아침 및 점심 식사가 일부 포함된다"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월요일: 온종일 집에서 설교 작성.

화요일: 교회에서 현장 회의. 교인들과 점심 식사 가능.

수요일: 아침에는 집에서 일하며 점심에는 교회에서 근무.

목요일: 오전과 오후는 사무실 근무, 교인들과 점심 식사 가능.

금요일: 집에서 일하며, 대개 글을 씀.

토요일: 안식일 및 가족과의 시간.

일요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현장에 있으며, 교인들과 점심 및 저녁 식사 가능.

끝으로 그는 "엄격한 근무 시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일을 며칠씩 갖는 것은 필수다. 우리 교회 팀의 경우, 화요일과 수요일은 거의 모든 사람이 현장에 있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美 법원, 동성애 반대했다 해고된 교사에 약 2억 지급 판결

학군 측, 법무비용 및 손해배상금 지급 및 복직 합의

미국 조지아의 한 학군이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동성 커플을 묘사한 동화책을 읽는 것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임시 교사에게 약 18만 달러(약 2억 40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그를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브라이언 카운티 학교(Bryan County Schools)는 린제이 바(Lindsey Barr)에게 법무비용과 손해 배상금으로 181,000 달러를 지불하고 그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바의 법적 대리를 맡은 비영리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필립 A. 세츨러(Philip A. Sechler) 선임고문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린제이는 중요한 문제, 즉 학교에서 자신의 자녀를 비롯한 다른 초등학생들에게 읽어 줄 그림책의 연령 적합성과 관련해 가족의 가치와 신념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는 "교육구가 마침내 '수정헌법 제1조는 린제이와 모든 공무원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우려를 표명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올바른 일을 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지난해 바는 동성 커플의 여러 행위를 삽화로 묘사한 '맥알리스터 초등학교는 모

든 이들을 환영한다'(All Are Welcome at McAllister Elementary School)는 제목의 책을 알게 됐다. 그리고 지난 8월 그 책이 학교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소리내어 읽기 프로그램'에 포함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히더 터커(Heather Tucker) 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해고됐다.

이에 ADF는 9월 터커 교장, 브라이언 카운티의 데비 맥널(Debi McNeal) 인사 책임자, 트레이 로버트슨(Trey Robertson) 교육 및 학습 부교육감을 상대로 조지아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DF는 소장에서 "바를 해고한 것은 그녀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관점의 차별을 구성한다"면서 "이는 중립적 또는 일반적인 적용이 아닌, 그녀의 종교적 신념 내용을 직접 겨냥한 것이고 적대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책과 관행에 따라 린제이 바는 결혼, 포옹, 임신, 육아, 가족에 대한 그녀의 관점과, 공립학교가 어린 자녀에게 동성 커플이 그려진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견해 때문에 대체 교사로 재직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카운티의 폴 브룩셔(Paul Brooksher) 교육감은 합의의 일환으로 바에게 그녀의 복직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브룩셔 교육감은 편지에서 "귀하가 학교에 복직하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Unsplash

자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줄 것을 권면한다. 그러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학군에서 고용이 배제되는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임시 교사로서 학군 전체의 아이들을 위해 귀하가 더하려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귀하를 학군에서 배제시켜 고통을 야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년 4월, 조지아주 의원들은 부모가 학교의 커리큘럼 내용을 검토하고 자녀의 성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권리 장전'을 통과시켰다.

ADF의 타이슨 랭호퍼(Tyson Langhofer) 선임변호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발언을 이유로 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교사와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그들이 문화

적·정치적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거나 학교의 입장에 반하는 관점을 표현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2021년 버지니아주 제20순회법원 재판부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그가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휴직 처리된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의 교사 바이런 테너 크로스(Byron Tanner Cross)의 복직을 명령했다.

제임스 E. 플로우맨(James E. Plowman) 판사는 "크로스 교사가 사용한 단어들은 공개적인 포럼에서 허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휴직은 '위험적인 행위'이며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그의 표현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강혜진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p>"모든 애서시 일분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p> <p>박은성 담임목사</p> <p>Acts Global Church</p> <p>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p>	<p>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p> <p>이미애 담임목사</p> <p>Angel's Church</p> <p>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p>	<p>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p> <p>한주봉 담임목사</p> <p>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p> <p>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p>	<p>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p> <p>이현욱 담임목사</p> <p>His Presbyterian Church</p> <p>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p> <p>송재봉 담임목사</p> <p>LA사랑의 동산교회</p> <p>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박자상 담임목사</p> <p>LA하나교회</p> <p>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JOE HONG 담임목사</p> <p>Metanoia Church of Southbay</p> <p>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p>	<p>주일예배 오전 10:30</p> <p>ISAIAH LEE 담임목사</p> <p>New Start Community Church</p> <p>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p>
<p>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p> <p>장경호 담임목사</p> <p>Only One Church</p> <p>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p>	<p>주일예배 오후 2:00</p> <p>제임스김 담임목사</p> <p>The Well Church</p> <p>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p>	<p>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남상권 담임목사</p> <p>남가주 어노인팅교회</p> <p>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p> <p>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김상현 담임목사</p> <p>In Christ Christian Church</p> <p>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안상희 담임목사</p> <p>남가주늘사랑교회</p> <p>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p>	<p>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p> <p>오상규 담임목사</p> <p>남가주예수사랑교회</p> <p>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p> <p>김창곤 담임목사</p> <p>남가주은혜선교회</p> <p>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차권희 담임목사</p> <p>늘워장로교회</p> <p>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p>
<p>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p> <p>강은덕 담임목사</p> <p>늘새론교회</p> <p>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jrkdk@hanmail.net</p>	<p>주일예배 오후 12:30 아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김영일 담임목사</p> <p>더섬기는교회</p> <p>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p>	<p>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p> <p>정용암 담임목사</p> <p>랜초한인교회</p> <p>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p>	<p>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7:30</p> <p>신용석 담임목사</p> <p>로고스라이프교회</p> <p>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정달성 담임목사</p> <p>리뉴얼새힘교회</p> <p>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p> <p>김명구 담임목사</p> <p>말씀위의교회</p> <p>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라크레센타 주일예배 9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p> <p>서민수 담임목사</p> <p>방주교회</p> <p>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p>	<p>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p> <p>장현석 담임목사</p> <p>버몬한인교회</p> <p>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p>
<p>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p> <p>지동근 담임목사</p> <p>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p> <p>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30 / 토 오전 6:00</p> <p>윤혁 담임목사</p> <p>브림장로교회</p> <p>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p>	<p>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p> <p>신현우 담임목사</p> <p>생명과사랑의교회</p> <p>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p>	<p>주일예배 오전 11:30</p> <p>곽태규 담임목사</p> <p>생명의길교회</p> <p>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p>
<p>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p> <p>장동훈 담임목사</p> <p>선민교회</p> <p>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p>	<p>주일예배 오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p> <p>임상훈 담임목사</p> <p>섬김의교회</p> <p>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30 / 토 오전 6:00</p> <p>이석기 담임목사</p> <p>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p> <p>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p> <p>김요한 담임목사</p> <p>성암교회</p> <p>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p>
<p>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p> <p>정찬근 담임목사</p> <p>예심교회</p> <p>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p>	<p>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회 수요일 새벽 5시 30분</p> <p>김지연 담임목사</p> <p>원웨이침례교회</p> <p>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p>	<p>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최주철 담임목사</p> <p>은혜가샘솟는교회</p> <p>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p>	<p>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p> <p>표희근 담임목사</p> <p>은혜샘교회</p> <p>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p> <p>류연중 담임목사</p> <p>주님의숲교회</p> <p>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p>	<p>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김성규 담임목사</p> <p>주백성교회</p> <p>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p>	<p>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p> <p>양수용 담임목사</p> <p>초대교회</p> <p>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p>	<p>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p> <p>권태래 담임목사</p> <p>카마리오열방교회</p> <p>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p>
<p>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조인 담임목사</p> <p>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p> <p>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p>	<p>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p> <p>류광환 담임목사</p> <p>커넥션교회</p> <p>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p>	<p>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토)</p> <p>김용근 담임목사</p> <p>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p> <p>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p>	<p>주일예배 오후 1:00</p> <p>정하이 담임목사</p> <p>크로스교회</p> <p>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p>
<p>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침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체드(오침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파워워십 2번매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매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p> <p>오홍성 담임목사</p> <p>하늘기쁨의교회</p> <p>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p>	<p>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6:00</p> <p>양국민 담임목사</p> <p>함께하는 주은혜교회</p> <p>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p> <p>김요한 담임목사</p> <p>Global United Church</p> <p>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p>	<p>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 12:27)</p>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명성교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3부예배(새벽예배) 오전 11:30 (토-일) - 헌정성경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ken 고지)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토-일) - 헌정성경예배
수요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한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로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에서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PCUSA 수장, 사임 발표... "변화의 시기에 옳은 결정"

허버트 넬슨, 7년만에 서기 사임 직무대행 6월 선임

미국장로교(PCUSA)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수장이 7년 만에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5일 PCUSA 총회 공서기인 허버트 넬슨 2세 목사가 오는 6월 30일 사임한다고 총회 사무국이 밝혔다.

넬슨은 자신의 사임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한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넬슨은 "미국 장로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친과 조부의 발자취를 따라 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며 "하나님이 제자의 삶에서 우리를 새로운 시기로 부르신다고 믿는다. 아내와 딸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뒤, 이 새로운 계절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유색인종인 많은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거나 가족을 부양할 수단도 없이 기소되고 투옥되는, 불공정한 현금 보석 제도에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 일을 맡은 첫날부터 저는 PC(USA)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몇 년간, 전국 교회는 노화와 교회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겪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넬슨은 2016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PCUSA 총회의 1차 투표에서 447 대 112로 탬파 노회의 후보인 데이비드 M. 베이커를 누르고, 주 총회 공서기로 선출되었다.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 까지 대행 서기를 지정하여, 2024년 7월



이번주 미국장로교(PCUSA) 총회 서기인 J. 허버트 넬슨 2세 목사가 오는 6월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PCUSA

총회 전까지 공석을 채울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당초 2024년 제226차 총회에서 물러날 계획이었던 넬슨이 서기로서 3선 연임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며칠 후에 나왔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에서 교회를 담임한 그는 8년 임기를 채운 전임 공서기인 그랜데파스 목사(63)의 뒤를 이어 교단을 이끌어왔다.

넬슨은 2020년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 시기에 교단을 이끌었다. 또 그는 교단의 쇠퇴와 재정적 문제로 인한 대규모 대면 총회의 개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지난 3월, 그는 앤디 베서 켄터키 주지사에게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넬슨은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이 "주 전역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트랜스젠더 형제자매가 가진 권리를 부정할 것"이라며 "PCUSA 총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퀴어,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진 기자

자녀에게 '이성 복장' 을 허용해선 안 되는 6가지 이유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성경교사인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는 최근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에게 이성 복장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공개했다.

24일 존 파이퍼 목사가 운영 중인 디자이어링갯(DesiringGod.org) 웹사이트의 팟캐스트 '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Ask Pastor John) 최근 에피소드에서, 한 청취자는 "아들이 교회에서 치마를 입도록 허용하는 교인 가족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물었다.

신디(Cindi)라는 이름의 이 청취자는 "그 부모는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하는 것 같았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양육 방법에 많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과거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 부모들을 성경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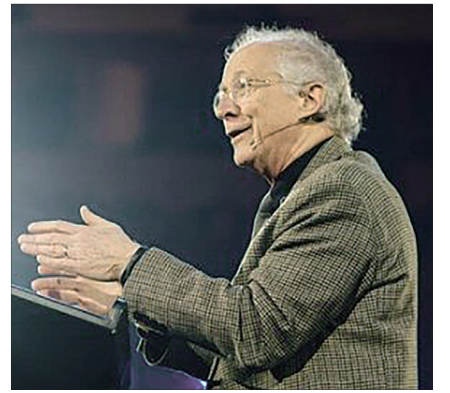
이에 파이퍼 목사는 부모들이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 양육의 전략을 조율하도록 격려하는 성경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파이퍼 목사가 인용한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특히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다고 말씀하신다.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창조하셨다. 소년과 소녀들은 인생의 처음부터 이를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으로 배워야 한다"고 했다.

둘째, 파이퍼 목사는 창세기 2장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말씀을 인용해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남녀의 차이가 결혼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 계획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결혼에 대한 보완주의적 신념을 갖고 있는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께서



존 파이퍼 목사. ©패션 콘퍼런스

는 이러한 성적인 차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를 리더십 역할의 기반으로 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2-24절과 골로새서 3장 18-19절에서 가족의 머리 직분을 남편과 아버지에게 할당한다. 남자의 타고난 우월한 힘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여자가 더 약한 그릇으로서 특별한 존중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이유로 언급된다. 자녀들은 그들의 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라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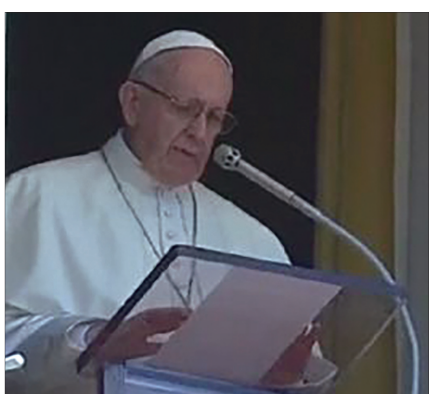
넷째, 파이퍼 목사는 "성경에 따르면, 부모는 아들이 여성적인 옷차림이나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딸이 남성적인 옷차림이나 행동을 받아들일도록 격려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 14절과 신명기 22장 5절은 남자가 이성 복장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다섯째, 파이퍼 목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에베소서 6장 4절을 언급하며 "성육에 관한 가르침이 적어도 앞의 네 가지 요점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섯째로 파이퍼 목사는 "교회는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 부모가 특별한 긴급성을 느끼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들이 자연스럽게 행복한 방법을 통해 자녀들이 성숙한 남성 또는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이는 자녀에게 뿐 아니라(그들이 살아갈) 더 넓은 세상에도 파괴적"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교황, 사상 최초로 여성에 '주교회의 투표권' 부여



교황 프란치스코 ©SBS 보도하면 캡처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에게 주교회의의 투표권을 부여했다.

2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티칸은 올해 10월 열리는 주교회의부터 여성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수도회 대표 구성을 기존 남성 10명에서 남성 성직자 5명과 수녀 5명으로 변경하고, 비(非)주교 신도 70명에게 투표권을 추가로 부여해 그 중 절반은 여성으로 채우기로 했다.

사제와 수녀, 부제 등으로 구성되는 비주교 신도 70명은 주교회의의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140명 가운데서 교황이 선출

한다. 교황청은 추천 목록에 젊은 신도들을 포함하도록 격려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여성이 주교회의에 참관할 수는 있었지만, 투표권은 받지 못했다.

로이터는 "통상 300여 명이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의 투표권은 전체의 10% 수준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가톨릭 여성단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케이트 맥엘위 여성안수회의의 전무는 "스테인트글라스 천장에 중대한 균열이 생긴 것"이라며 "여성단체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주교회의는 교황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전 세계 주교들의 대표자를 비롯한 대의원들이 모여 교리와 규율, 전례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의결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공의회(Councils)와 달리, 주교회의는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한 뒤 투표를 거쳐 만든 건의안을 교황에게 제출하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오는 10월 주교회의는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추며,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성소수자(LGBTQ)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강혜진 기자

“굶어 죽으면 예수 만난다” 케냐 사이비 종교 사망자 90명



수색팀이 땅에 묻힌 시신을 발굴해 수습하고 있다. ©YTN 보도화면 캡처

현지 경찰, 시신 수색 작업 계속

케냐 동부 항구도시 말린디 인근 사카홀라 숲에서 “굶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은 사이비 종교의 신도가 집단 사망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시신은 총 90구에 이른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최근 기쁜소식국제교회(Good News International Church) 폴 매켄지 은탱게(Paul Mackenzie Nthenge) 목사가 교인들에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종용해 4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케냐의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은탱게 목사와 일부 교인들은 사망자들을 동부의 말린디 인근 800에이커 규모의 목장인 '사카홀라'에 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곳과 인접한 몸바사의 은퇴한 율리우스 칼루(Julius Kalu) 성공회 주교에 의하면, 사카홀라는 '문제를 치유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칼루 주교는 릴리전뉴스 서비스(Religion News Service)와의 인터뷰에서 “은탱게 목사가 이곳에 땅을 살 때,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칼루 주교는 “이 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은탱게 목사가 어디서 이런 종류의 신학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이를 죽을 때까지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오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지역도 인구 밀도가 낮다”고 했다.

지난 24일 목장에서 26구의 새로운 시신이 발굴됐다. 현지 경찰은 진행 중인 수색을 통해 더 많은 시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일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은탱게 목사의 건물을 급습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이후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명의 수척한 생존자들을 찾아냈다. 생존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굶어 죽으라는 목사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은탱게 목사는 15일 기소 및 구금됐으며 내달 2일 법정 심리를 앞두고 있다.

케냐 적십자사는 지역 병원에 설치한 주적 및 상담 데스크에 200명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케냐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이 종교를 이용해 극악무도한 행동을 한다. 목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테러와 유사하다’며 “매켄지와 같은 이들이 종교를 이용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예배 자유를 담은 은탱게 목사의 행동을 비판했다. 케냐는 인구 대다수가 기독교인으로 전체 약 5,300만 명 중 85%가 기독교인이고, 10%가 무슬림이다.

킨디키 키투레(Kindiki Kithure) 내무장관은 “국가는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비양심적인 이러한 병폐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교회, 모스크, 사원 또는 회당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에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탱게 목사는 역동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가이자 기독교인의 삶과 영성을 다룬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2003년 말린디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가 2015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가르침에 논란이 생겨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때 그는 숲에 정착했다.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OC예배
2부 예배 오전 11:00 OC예배
3부 예배 오후 7:45 OC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0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7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9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성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예배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의 열매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보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겠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otmail.net

박훈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300

“교회는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마지막 부분에선 반드시 목숨을 거는 선교적 교회를 말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인류 최초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동의 목적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대적자 사탄 마귀를 폐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 교회도 시대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2천 년의 세월을 승리하며 존재하였던 것이다. 선교적으로 암흑기였던 중세기에도 교회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배출해 내며 펍박과 환란을 견디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 여전히 선교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는가? 필자는 자신한다. 그렇다. 하나님 나라

를 세우기 위해 순교적 각오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참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의 선교 비전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저(값) 선지자들이 이끄는 세속적인 거짓 교회들이 팍박하고 정죄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선교에 지나친 선교가 있을까? 공격적 선교라 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 이 절대적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타종교 지역을 가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독선이라고 교회가 말할 수 있을까? 필자가 선교적 교회로의 말씀을 갖고 선교 동원을 할 때 들었던 말이 회상된다. 감사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한 번도 사명이 꺾이거나 좌절한 적이 없다. 이유는 굳건한 동역자들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는 이슬람 선교 현장을 향해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떠날 준비를 한다. 지난 6년 가까이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는 사명으로 선교지 칼럼을 썼다. 오늘 300회를 마지막으로 이 칼럼을 마무리 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필자는 선교 현지로 이사하고, 거주 허가 절차를 밟고, 모든 정착이 마쳐지면 열방의 선교 부흥을 위한 열정을 더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 그리고 묵묵히 읽어 주시며 응원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일보 편집실, 디자인 팀, 대표에게 감사한다.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Troilus and Cressida)”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야기의 배경은 신화와 역사의 경계선에 있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히타이트 문명을 누린 부강한 나라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에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파리스의 행동을 트로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지했습니다. 오직 파리스의 여동생이자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만이 사건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편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오스는 형인 뮈케나이의 왕 아가멤논에게 그 사건을 말했습니다. 또한, 오디세우스와 함께 트로이로 가서 헬레네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가 벌였던 트로이 전쟁은 칠년 동안 이어졌고 트로이를 멸망에 이르게 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에 얽힌 이야기는 서양 문학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물론 작가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의 구성과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호머의 <일리아드>가 아킬레스와 헥토르를 주인공으로 하는 장대한 영웅의 서사시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은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성벽 앞에 진을 친 채 전투가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파리스의 동생

트로일러스는 그리스도 망명한 신관의 딸 크레시다를 소개받습니다. 소개를 받고 나서 트로일러스는 크레시다의 삼촌인 판다로스에게 아름다운 크레시다가 자신의 사람이 되게 도와 달라고 강력히 부탁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로 망명한 크레시다의 아버지 칼카스(Calchas)는 딸을 그리스로 데려오기 위해 딸과 트로이 포로와 교환해 줄 것을 그리스 장군에게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아가멤논의 지휘를 받던 연합군은 내부의 분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장군 아킬레스가 전투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그의 동생 애인 파트로클루스와 군막에만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트로이에서는 헬레네를 지키기 위해 계속 전쟁을 할지 아니면 그녀를 그리스로 돌려보낼 것인가로 의견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헥토르는 헬레네를 위해 많은 병사의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트로이에서는 헬레네를 지키기 위해 계속 전쟁을 할지 아니면 그녀를 그리스로 돌려보낼 것인가로 의견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헥토르는 헬레네를 위해 많은 병사의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헥토르는 트로일러스 왕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크레시다를 그리워하던 트로일러스는 그리스 진영에 잠입하여 칼카스의 군막을 찾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올리스스 장군이 트로이 군인인 줄 알아보고 크레시다의 애인이 트로이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요 트로일러스의 형인 헥토르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탄에 빠진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리스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동생 애인을 잃은 아킬레우스 장군은 사납게 헥토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거칠게 간추린 셰익스피어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의 줄거리입니다. 그의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는 <법에 법으로>, <끝이 좋으면 다 좋아>와 더불어 셰익스피어의 ‘문제극’이라고 불립니다.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는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무대에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퇴색한 사랑 그리고 영웅들의 정치적 모략이나 책략 등, 당시 관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ACC, SACS 인증. 기독교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지역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정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ACC, S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ACC, SACS 인증.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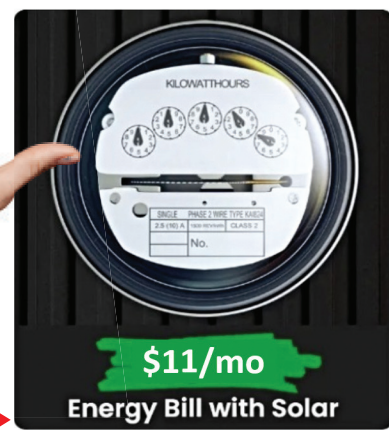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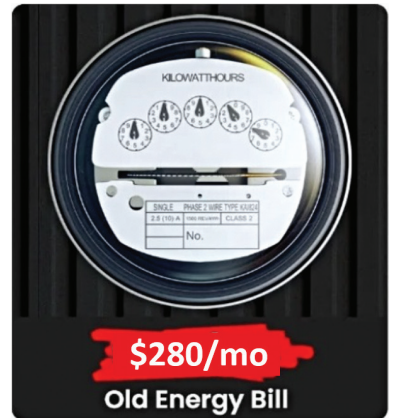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전기세가 11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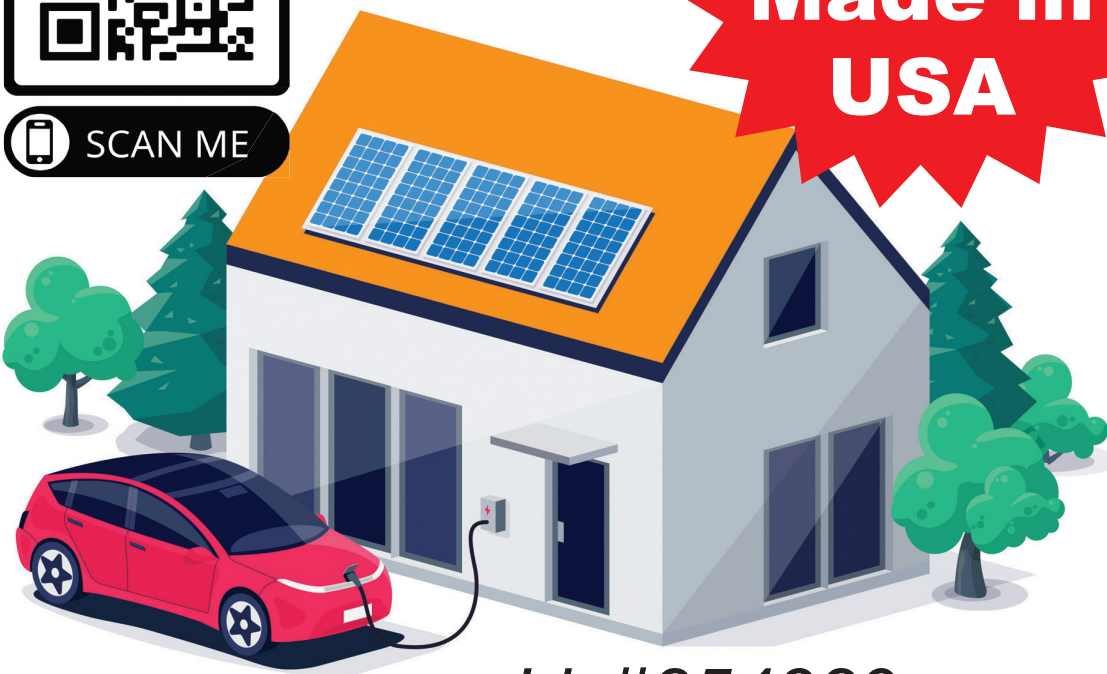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SCAN ME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강준민 칼럼

상처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모국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실패의 스토리에 은혜를 받았습니...

했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꽃길만을 걷길 원합니...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패할 때 철저히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좋습니...

생각합니다. 실패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패라는 과거의 노예가 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합니...

“삶의 여정에서 불행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영광이 되려면 꼭 하나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백 퍼센트 최선을 다해 실패하라’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패는 시시한 성공보다 열 배는 더 소중합니...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신중함으로 만듭니다. 실패는 방심의 결과입니다. 저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참된 지혜는 신중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옛날보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절차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세심하게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제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실패가 주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실패 속에는 성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 속에는 성공의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는 변장된 성공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가 선물해 주는 역할적 축복과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생각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실패도 선물로 생각하면 실패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자신을 실패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탁월한 성공은 많은 실패 후에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패가 중요하다고 실패를 너무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실패를 극복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 뵈 날이 멀지 않았습니...

진유철 칼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난 주간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총 9분이 함께 했던 대만의 목회자 수련회 및 5개 교회 집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

오늘 오후에는 전 성도가 기도원에 올라 기도하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원성령대만회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도 속에서 총명한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 말씀의 내면화가 내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전승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간인 5월의 첫 번째 목요일, 5월 4일은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입니다. 미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그 뒤에는 국가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952년 미국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시작된 이래, 올해

로 72주년이 된 2023년 국가 기도의 날의 주제 성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야고보서 5:16b)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여겨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마치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의 가뭄이 단번에 해결되듯,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갈등, 경제적 위기, 사회적 혼란 등 거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미국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타락에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5월 4일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교회와 열리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들도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 소수민족일지 모르지만, 기도에 있어서만 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열정을 부여 주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이 땅을 살리는 기도의 불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믿습니...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o COLLISION CENTER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구봉주 칼럼

믿음과 행함



구봉주 목사
감사한교회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신학적인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은 이 논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지만, 사실, 믿음과 행함의 차이, 그리고 서로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지만, 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도무지 해결 받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서, 고행도 해보았으나,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을 때, 죄 용서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승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마틴 루터의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의 경험 때문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3가지가 종교개혁주의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함으로는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했던 끔찍했던 경험, 은혜와 믿음이라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경험한 너무나 설렌 기쁨 때문에 마틴 루터는 행함을 도외시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믿음과 행함이 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꿈, 죽은 믿음이다”라

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 즉 성경 말씀들 가운데 가장 수준 낮은 말씀이라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틴 루터가 은혜와 믿음 그리고 행함의 상관관계를 생각지 않고, 각각 따로,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생긴 오해입니다.

사실, 은혜, 믿음, 행함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신앙 그리고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이 없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인 피 흘리심과 죽으심 부활이라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믿는 자의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기쁜 소식을 그 소식을 믿는 자에게 실제로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행함이라는 결과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저 관념적 지식적 믿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믿음의 행함,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신앙의 롤 모델로 존경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짝꿍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하고, 행함을 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동식 칼럼

율법적 순수주의라는 교단 분열의 동기를 재고하며



박동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핑크색 스웨터를 입고 강의하러 갔더니 한국에서 갓 온 학생이 그러다. ‘남자가 핑크색 입으면 동성애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자 미국에 초등학교 때부터 온 학생이 ‘Tough guy wears pink.’(터프가이는 핑크색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사실 청년 시절 별명이 터프가이였는데, 어찌 이렇게 잘 맞을까.

색깔이 사람을 규정할 때가 있다. 빨갱이, 회색분자, 속이 검은 놈, 싸수가 노란 놈 등등. 우리는 이렇게 색깔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범주에 집어넣을 때가 많다. 그렇게 규정한 색깔로 편을 가른다. 같은 색깔 아니면 적이다. 왜 이렇게 색깔로 사람을 나누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까.

기독교 역사에서 도나투스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성경을 지켰던 이들이다. 그런 까닭에 신앙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던 이들을 배교자로 불렀으며, 그들이 교회로 돌아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기엔 영적으로 아픈 이들을 받아줘야 한다고 했다. 도나투스파는 신앙의 순수성은 지켰지만, 그 순수성을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로 삼았던 것이 문제였다.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도덕적 잘못을 저지른 목사를 비판한다. 그 교회는 가지 않으려 한다. 어떤 의미에서 도나투스적이다. 하지만 역사가 도나투스파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우리의 태도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죄를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타인에게는 아우구스티누스적 관대함과 포용성을 가지자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쩌면 그 반대인지도 모르겠다. 타인에게는 신앙의 순수함과 철저함을 요구하고, 자신에게는 신앙의 관대함과 유연함을 적용하지는 않은가.

교단 분열은 어쩌면 “순수”에 대한 집착에서 기인하지 싶다. 나는 기독교 정통 교리를 지켰는데 이 교리와 조금만 달라도 분열의 동기가 된다. 논쟁은 일치를 위한 논쟁이어야 하고, 살리는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 상대방이 이단이 아닌 이상, 분열이나 죽이는 쪽이 아니라 회복하고 일으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화 에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경주용 말로 쓸 수 없는 말을 죽이려 하자, 한 사람이 ‘죽이지 말라’하며 자신이 데려가겠다 한다.

그리고는 그 말이 다친 다리를 보살펴 준다. 한 사나이가 ‘달리지도 못하는 말을 왜 고쳐주려 하나’고 묻자, 그가 대답한다. “Cause I can”, 즉 “내가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여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you don’t throw up a whole life away, just cause he’s banged up a little.”(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함부로 전체 삶을 버리지는 말라).

버리는 인생,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되지 않은가. 다시금 교회를 회복해야 하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 무슨 색깔이지, 나 무슨 색깔이야’가 아니라, 서로 만나 한 색만 가지는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색깔을 만든다면 그것 또한 아름답지 않은가. 푸른 나뭇잎도 아름답지만, 가을날 울긋불긋 색이 든 단풍은 더 아름답지 않은가.

미국에 있는 한인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 배경이 다양하다. 한국 같으면 장로교 통합 교회 출신이 장로교 통합 신학교를 가고, 합동 교회 출신이 합동측 신학교를 가고, 침례교 교인이 침례 신학을 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여기는 통합, 합동, 고신, 기장, 감리교, 침례교 등등 다양한 교파 학생들이 와서 공부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다른 교단들의 입장

을 알게 되고 대화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나 교인들은 자신이 신앙생활 했던 교단에서 자라고 신앙생활 했기에 그것에 익숙할 뿐이지, 그 교단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그렇게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민 사회 속에서 한인 신학교가 가지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교단 간의 왕래나 신학교 교수들 간의 세미나나 친목회를 통해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분열이 아닌 일치로 나아가는 교회 연합의 중요한 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 한 마리 가로등 위에 사뿐히 앉고는 가로등 폭탄을 걸어간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자신도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지 그 끝에 두 발을 딛고 멈춰 선다. 그런데 날개가 있지 않은가. 떨어지면 날면 되지 않은가.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그도 때론 그렇게 날갯짓을 멈추고 두 발을 딛고 쉬고 싶어서 그런 곳에서서 멀리 바라볼 것이다.

우리로도 분열의 날갯짓을 멈추고 잠시 서서 멀리 바라보자. 그리고 물어보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뉘어 있는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무엇 그리 자기만 옳다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을까? 이제는 율법적 순수주의라는 교단 분열의 동기를 재고하며, 가뜩이나 분열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민 교회가 달라지기를 바람과 동시에 교회 일치 쪽으로 몸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중환간담센터 이성수 소장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44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4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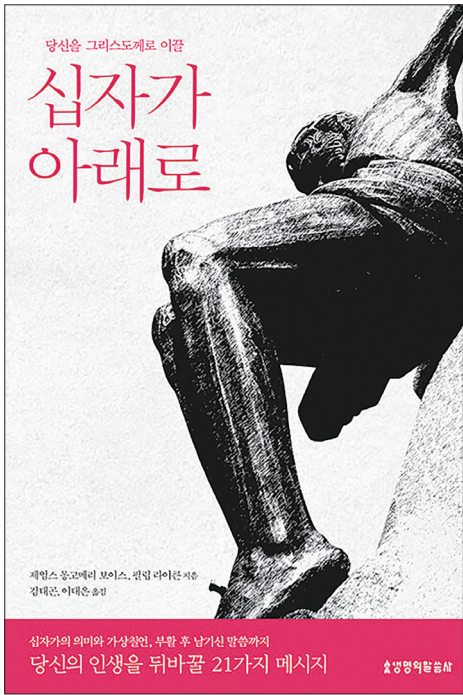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십자가의 참 의미를 매 순간 되새기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 가상칠언 아닌 부활 후 제자들에게...



을 정리한 책이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쓴 <십자가 아래로>이다(14 Words from Jesus & Salvation by Crucifixion). 이 책은 각각 2014년, 2016년 생명의말씀사에서 출간된 <더 라스트 워즈>와 <십자가 복음>의 합본 서적이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탁월한 강해설교가이며, 국제성경무오협의회 회장으로 10년간 섬겼다. 필립 라이큰은 보이스 목사 후임으로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섬기다 휘튼대학 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보이스의 설교문은 설만한물가에서 낸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 개혁주의신학사에서 나온 <부활절 메시지>와 <성탄절 메시지>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필립 라이큰은 갈라디아서 개혁주의 성경 강해 주석의 저자이기도 하고(부흥과개혁사, 2017), <하나님을 위한 예술>(규장, 2021), <헛된 세상, 헛되지 않은 삶>(생명의말씀사, 2018) 등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앙 서적도 적지 않게 썼다.

이 책의 배경은 참 아름답다. 바쁜 일상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했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특별한 예배를 준비한 두 목사의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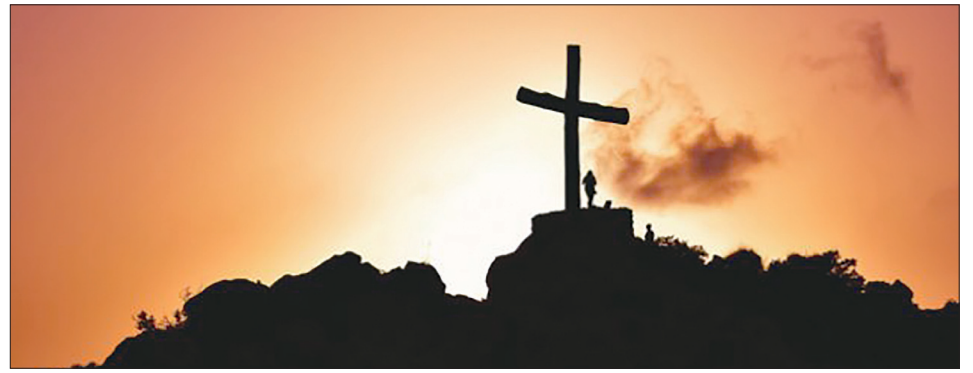
책은 일곱 개 메시지로 분류된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파트는 십자가의 7가지 의미, 두 번째 파트는 십자가 위 7가지 말씀, 세 번째 파트는 부활 후 7가지 말씀이다. 15분 정도 설교를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의 깊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여 설명하고 오늘날 적용을 도출하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의 유익은 크다.

매년 교회력을 따라 사순절을 기념하는 교회가 많은데, 수많은 절기를 지켜왔음에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가 많다. 단순한 악세사리, 기독교의 상징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인 아들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틀에 매다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신에게 정말 감동이 되는가? 경이롭고 존경스러운가? 십자가가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그만큼 큰 희생을 통해 찾으셔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를 죄인인 우리에게서 아니라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찾으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헤아려야 한다. 심각한 죄 문제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

보이스와 라이큰이 제대로 지적한 것 같



©Pexels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가 아니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다.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타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굳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부활 후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준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소망을 부여한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남아서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받았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다(고전 15:1). 사순절뿐 아니라 매 순간 우

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갈 2:20).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선포를 통해 그분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이 책 <십자가 아래로>가 독자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이끌어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십자가 아래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 필립 라이큰
김태곤 · 이대은 역

생명의말씀사 | 280쪽

**평생 묵상해도
늘 새로운 구원의 핵심**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라!**

십자가를 찾지 않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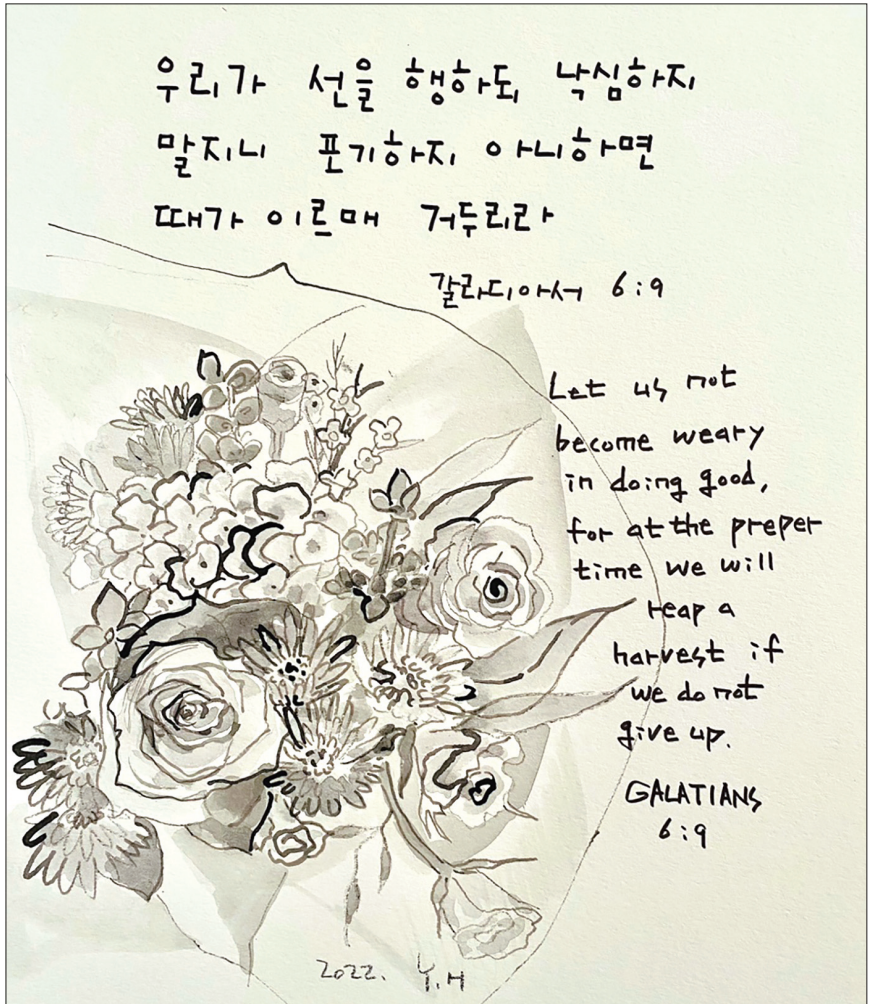
십자가의 의미부터
가상칠언과 부활 후 말씀까지.
사순절부터 부활절 이후에도
이어지는 십자가 묵상집

1996년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서 오래된 사순절 전통을 되살려 매주 금요일 점심 12시 15분,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교회 성도들, 초대받아 함께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일곱 차례 예배를 드렸다. 플루트나 피아노 연주자의 클래식한 음악 연주, 기도, 말씀 낭독, 15분 정도의 말씀 설교가 총 30분 안에 마무리되고, 사람들은 늦지 않게 직장으로 돌아갔다.

30년 간 제10장로교회를 섬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와 후임 목사인 필립 라이큰은 이 특별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신약의 가르침을 각각 선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부활 후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신약성경 증언을 가르쳤다.

외부 사역으로 바빴던 보이스(4편)를 대신하여 라이큰(17편)이 대부분 설교한 내용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 서울 (310) 538-3333 | LA (323) 582-2424 |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훈데르트바서, 아픈 땅을 치료하는 예술가

‘친환경적 작품’으로, 기독교적 치유와 회복 꿈꾸다

자연계 모티브, 화려한 색상과 식물 형태 자주 등장
볼품 없어진 건물에 새 호흡 불어넣어 의미 되찾아
하늘과 땅의 이혼에도, 하나님 사랑 흘러감 보여야
이 세상 회복 상상하며 작은 일부터 환경 돌봄 실천

오스트리아 태생의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 1928-2000)는 유럽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독학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개척한 독특한 이력의 예술가이다.

그의 예술을 형성하는 데는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 안토니 가우디 등 유겐트스틸(Jugendstil)의 미술가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연에서 유래된 부드러운 곡선을 조형 어휘로 구사한 공통점을 지녔다.

훈데르트바서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친환경적 미술가’라는 애칭이다.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에 흐르는 백 개의 강”이란 뜻으로 그가 추구하는 정신을 알려준다.

그의 작품에는 화려한 색상과 식물성 형태가 자주 등장하며 자연계에서 착안된 모티브들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가로서 그의 신념은 매우 뚜렷하다. “집을 지으면서 파괴된 자연을 다시 지붕 위에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자연에서 빼앗은 영토를 자연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말하자면 그는 자연의 손님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빼앗은 것을 돌려줄 의무를 지니므로, 건물 옥상에 흙을 올리고 풀과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자연 돌봄은 적극적으로 작품속에 반영된다. 대표적인 예가 빈 소재의 훈데르트바서 하우스(Hundertwasser House)이다. 임대 아파트지만 디자인이 독특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고 사계절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작품은 식물과 인간의 공존을 바탕으로 제작됐는데, 곳곳에 나무가 자라고 지붕에 잔디와 나무를 심어 마치 숲에 와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건축물이 푸른 자연으로만 인식될 때, 건축물은 자연의 ‘이물질’이 아니라 소신대로 자신의 작품도 녹색의 일부로 남겨두었다.

그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나온 개념이 ‘나무 세입자(Tree Tenant)’이다. 훈데르트바서는 나무가 당당히 건물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나무 세입자’로 불렀다.

그에게 ‘나무 세입자’는 도시속 ‘숲의 대사’로서 인간의 동반자로 기능하며 도시를 다시 인간이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세입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나무를 의인화한 것이 재미있

는 발상이지만, 자연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그의 ‘나무 세입자’ 이론에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연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그만의 철학이 내재돼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곡선’이 조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이었던 작가는 ‘곡선’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직선은 하나님이 부재하고 부도덕하다”는 신념을 품었다.

즉 기하학적인 직선은 창조적인 것이 아니며, 자연을 돌보라는 신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표시라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무의 형태 역시 직선이며, 세포 역시 직선으로 된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자연적인 것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뜻에서 비롯됐으리라 추론하게 된다.

보다 근본적인 물음은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대응 방식이 크게 잘못돼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사업가들에게 자연은 ‘천연자원’을 의미하고, 피조 세계는 단지 이익 창출을 위한 ‘원자재’일 뿐이다. 자연 약탈은 재앙을 초래할 뿐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코로나19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

우리의 착각은 자연이 우리의 소유라고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성경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주의 것이로다(시 14:1)”.

하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이 땅 전체를 조립라인으로 바꾸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의 지배 아래 두셨기에, 우리는 이 땅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피조 세계의 지속적 관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셈이다.

이런 인식의 틀에서 볼 때, 훈데르트바서의 생태주의 예술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것은 자연을 남획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살필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에 있다. 훈데르트바서야말로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행동하는 예술가’란 생각을 갖게 한다.

그의 대표작 중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변모시킨 슈피텔라우(Spittelau)가 있다. 이곳은 다른 기피 시설과 마찬가지로 도시 환경의 시각적 오염으로 외면받는 곳이었다.

막상 이곳에 작품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작가는 고민하다가 이 프로젝트에



하우스(훈데르트바서, 오스트리아 빈, 1977-1986).



스티텔라우 소각장(훈데르트바서, 오스트리아 빈).

착수하게 된다. 곳곳에 화려한 색깔과 유기적인 패턴을 넣고,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슈피텔라우는 놀랍게도 ‘꿈의 궁전’으로 재탄생했다. 그는 쓰레기 소각장을 기술과 생태가 결합된 예술 작품으로 바꾸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건축치료사’ 또는 ‘건축 의사’로 불린다. 다시 말해 삭막하고 병든 건물을 고쳐,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치료하는 예술가라는 뜻이다.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비롯하여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유리병을 재활용한 공공화장실 등은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건물을 새롭게 되살려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볼품 없게 된 건물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존재의 의미를 되찾아준 셈이다.

그의 건축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죄로 인해 손상된 자연을 치유를 통해 복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땅은 생물 다양성의 상실, 기후를 위협하는 공기와 물의 오

염, 그리고 다른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워드 A.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이를 땅과 하늘의 이혼에서 생긴 문제로 진단하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가는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런 주장은 지구 환경이 위기에 빠지면서 설득력을 얻게 됐다. ‘동산의 치유’란 의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된 셈이다. 훈데르트바서 역시 자연이 훼손된 원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창조질서를 거역하고 ‘지구를 죽였다’는 데서 찾았다. 결국 그가 꺼내든 카드는 기독교적 의미를 지닌 ‘치유’와 ‘회복’이었다.

최종적으로 창조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협력자(cooperatio Deo)로서 맡겨진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훈데르트바서의 ‘치료받은 건축물’을 보면서 이 세상이 회복되는 광경을 상상하며, 주위 작은 일부터 환경 돌봄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물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The 4th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Dallas 2023

Revival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브라이언 김_찬양선교사



송 솔나무_플루티스트

“오전과 오후는 통일전문강사들의 열린 강의로, 저녁은 부모와 MZ세대들이 찬양 Concert”

1905년 - 원산 대부흥
1907년 - 평양 대부흥

그리고,
2023년 2월 - 에스베리 부흥
2023년 8월 - 달라스의 부흥



"WK(WITH KOREA) 챌린지"

MZ세대들의 자유롭게 하나되는 통일코리아를 표현하는 경연장, 상금 우승자(팀)에게는 \$3,000의 (제2회)복음통일 어워드를 드립니다.

* 상세한 참가방법 등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지도위원) 임현수 목사 TMC (지도위원)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지도위원)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지도위원) 이용희 교수 에스디기도운동 (분단원인/회개강사) 오창희 목사 원동교회담임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굿뉴스보다 더 큰 목마름 (현장사업장) 신상태목사 방곡환연원교회담임 (통일영상의 필요) 윤학렬 감독 '칠기방우수씨' (북한현실/문화) 강동원 교수 동아대학교 (기독교자유의 가치) 김민아 대표 M Kim TV (북한이탈청년노동불과 안락) 이병철 목사 춘천주향교회담임 (준비위원장) 장햇살 목사 호스트교회 (탈북중인) 연광규 전도사 미국신학교유학중

2023년 8월 14일(월)~17일(목)



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

문의 : 대회본부 (425) 775-7477 개최교회 (972) 395-9200 기타 (757) 634-2065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of Diaspora

주관: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후원: 베다니장로교회 협찬: 기독교일보 YouTube LIVESTREAM